


[서식5]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작성일자 (2017. 12. 11)

정책연구과제명	MIKTA: Towards a strategy to promote multilateral diplomacy and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연구기관/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자 3인: 김성미(영국 Angila Ruskin 대학교 부교수), Harris Rimmer(호주 Griffin Law School), Sebastian Haug(영국 Cambridge 대학교 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정책분석담당관실/ 윤지원 정책분석담당관	담당공무원	김하니 외무행정관
연구 방식	1. 위탁형 용역(<input checked="" type="radio"/>) 2. 공동연구형 용역(<input type="radio"/>) 3. 자문형 용역(<input type="radio"/>)		
연구자 선정방식	1. 경쟁계약(<input type="radio"/>) 2. 수의계약(<input checked="" type="radio"/>)		
연구 기간	2017.7.24 ~ 2017.12.18 (5개월)		
연구 결과	<p>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MIKTA가 중견국 협의체로서 가지는 의미 및 유용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회원국들이 MIKTA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책적 환경(공정/부정적 요인 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인터뷰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미타가 중견국 협의체로서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p>		
평가 결과	<p>·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동 연구는 각 회원국들의 미타에 대한 기여의지 및 시각,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조사하여 미타의 중견국 협의체로서의 유용성을 분석하고, 동 협의체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연구의 기본방향에 부합함. - 다만 중견국 협의체로서 미타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개별 국가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양자 또는 소다자간의 관계나, 미타가 현재 글로벌 질서의 구조적 맥락에서 차지 하는 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p> <p>·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관련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 그룹이 공동 작업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전체적인 흐름이 매끄러울 뿐 아니라 해당 분야 연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입안자, 학계 등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점은 평가할 만함. - 해외 체류 학자라는 특성을 이해하기는 하나 지난 5년여의 시간 동안 국내의 중견국 연구와 미타 연구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섭렵이 필요해 보임</p> <p>·계약 내용의 충실성 - 전반적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함. - 해외 체류 학자들의 시각에서 보는 미타 전략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제시했다고 판단됨</p> <p>·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현 정권의 △외교안보전략 비전 및 전략 설정, △각 분야별 전략 과제분석 및 정책 제언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미타 연구와 정책의 맥락을 이해한 입체적인 연구결과의 활용이 필요함</p> <p>·기타사항</p>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김상배 서울대 교수 	윤지원 정책분석담당관 (인) 